

일반연구논문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몸과 함께"■

임소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 S1A5B5A02032231).

본 논문에 세심한 지적과 제안을 해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 특히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래 고민한 끝에 썼으나 부족함이 많은 이 글에 세 분 심사위원이 애정 어린 비판을 해 주셔서 앞으로의 연구에 큰 격려가 됩니다. 본 논문의 서로 다른 초고 버전이 각각 한국여성학회(2016.11.19)와 한국이론 사회학회(2018.8.23),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2018.11.22)에서 각각 발표 되었음을 밝힙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전자우편: soyeonleem@sookmyung.ac.kr

최근 서구 인문사회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물질이며 페미니즘도 예외는 아니다. 이전까지 과학기술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페미니즘이 물질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과학기술학 역시 “존재론적 전환”을 통해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본 논문은 신유물론이나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기 보다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성과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는 안느마리 몰, 캐런 버러드, 그리고 캐리스 탐슨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의 존재론적 개념을 통해 성형외과 현장연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을 연구하는 한 방식을 보이며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문제의식 하에 페미니스트 성형수술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 이어서 과학기술학 분야의 존재론적 전환에 해당하는 개념 및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형수술 실천을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접점에 있는 연구가 갖는 페미니스트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주제어 | 몰, 존재론, 신유물론,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 다중적 몸, 내부-작용, 존재론적 안무, 과학기술과 여성

1. 서론:

신유물론, 그리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접점

최근 서구 인문사회학계의 최대 관심사는 물질이다.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의미와 재현, 언어 등이 가진 힘에 몰두해 온 구성주의적 전환에 대한 탈구성주의적 전환이자 인간중심주의가 초래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Lykke, 2010). 이러한 물질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은 인간을 세계의 유일한 주체로 보는 서구철학적 전통을 거부하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¹⁾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맑스주의 유물론의 뒤를 잇는 계보 속에서 신유물론(new materialism)²⁾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물질에 대한 전례없는 관심은 페미니즘도 예외는 아니다. 십여 년 전부터 서구 페미니즘 학자들은 페미니즘의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에 뉴 페미니스트 유물론(new feminist materialism) 혹은 신유물론 페미니즘(new material feminism) 등의 명칭을 부여하며 이론적, 경험적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전까지 과학, 기술, 의료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페미니즘이 물질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

1) 이 때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향상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트랜스휴먼(transhuman)이 되기를 지향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을 포함하지 않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뜻한다.

2) 국내 학계에서 new materialism은 주로 “신유물론”으로 번역되지만 “신사물주의”나 “새로운 물질론” 등으로 번역어도 사용된다.

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유물론이나 신유물론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³⁾ 본 논문은 특히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의 한 유형을 제안하며 신유물론이 촉발하는 질문과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학기술학에서 신유물론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사실 과학기술학은 그 자체로 인문사회학의 물질적 전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미 과학기술의 물질성과 물질의 행위성 등에 주목해 왔다. 이언 해킹(Ian Hacking)의 과학적 실재론에서부터 앤드류 피커링(Andrew Pickering)의 실험실 연구와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Theory), 그리고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사이보그 선언과 캐런 버라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학은 이미 신유물론적 발전을 해왔다. 신유물론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회구성주의와 실재론 사이의 치열한 논쟁 끝에 존재론적 전환(ontological turn)이라고 불리는 흐름이 등장하기도 했다.⁴⁾ 물론 과학기술학에 속

3) 과학기술학 분야를 넘나들며 국내에서 신유물론 논의를 이끄는 학자로 김환석과 조주현이 있다. 김환석은 2016년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을 위하여」라는 논문을 썼으며 현재까지 신유물론 관련 학술 활동을 해오고 있다(김환석, 2016). 신유물론 페미니즘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같은 해 조주현이 쓴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버라드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조주현, 2016). 2016년은 한국여성학회의 추계학술대회 <젠더와 테크놀로지: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페미니즘과 물질적 전회”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세션이 구성되기도 했다. 신유물론적 사상이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용어로 연구되거나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유형의 포스트휴머니즘 사상 및 연구가 혼재되어 있어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4) Social Studies of Science(2013) 43권 3호는 “과학기술학에서의 존재론으로의 전환?(A Turn to Ontology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이라는 제목으로 존재론적 전환을 특징으로 다룬 바 있다.

하는 모든 연구가 신유물론이나 존재론적 전환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가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거나, 과학이 지식이나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이고 물질적인 실천이라는 것, 그리고 물질이 수동적인 도구나 매개체가 아니라 이 사회의 주요 행위자라는 것 등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학은 신유물론에 상당히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에 관심있는 연구자에게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등장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갑다. 신유물론을 통해서 비로소 페미니즘이 과학기술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접점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전의 논문(2011b)을 통해서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in-between)에서 연구하기에 대한 초기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안-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이 과학기술학 밖의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즘 밖의 과학기술학 어느 한 쪽으로는 제대로 탐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이 과학기술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여성 외에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 및 비인간 존재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여성 주체에 집중하는 페미니즘 이론 및 정치학으로는 과학기술 실천을 충분히 기술할 수 없다. 반면 과학기술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페미니즘 연구자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제공하는 도구들 각각이 갖는 미묘한 뉘앙스와 깊은 맥락을 온전히 파악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Campbell, 2009). 따라서 본 연구자의 과거 논문은 사실상 페미니즘 밖에서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을 분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정치학에 기여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학 연구자의 고민에 대한 것이었다. 구성주의 과학기술학 이론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이 긴장을 일으키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긴장을 생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찾아낸 방법은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제안한 “기술-과학적 방식의 생각하기(techno-scientific way of thinking)(Haraway, 2004: 336, 임소연(2011b)의 99쪽에서 재인용)”였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하기로서 캐런 버러드(Karen Barad)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과 함께 수잔 스타(Susan Leigh Star)의 비가시적인 것들(the invisible), 캐리스 탐슨(Charis Thompson)의 존재론적 안무(ontological choreography), 그리고 마리아 푸이그 들 라 벨라카사(Maria Puig de la Bellacasa)의 돌봄물(matter of care) 등의 개념을 사례로 들었다(Star, 1991; 1995, Thompson, 1996; 2005, Puig de la Bellacasa, 2009; 2011).

2011년의 논문과 본 논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페미니즘과의 관계 변화이다. 과거의 연구자가 페미니즘의 ‘밖’에서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 연구 방법을 모색했다면 본 논문은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안’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실천을 연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이다.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물질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는 페미니즘으로 물질을 들여다보는 데에 익숙한 과학기술학 연구자에게 매우 친화적인 페미니즘이다.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affected) ‘기술-과학적 방식의 생각하기’가 ‘몸과 함께 연구하기’로 변화한 셈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유물론이나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전면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성과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서구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과학기술학에 넣고 섞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학의 존재론적 성과를 기반으로 신유물론 페미니즘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전 논문에서 버러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과학기술학 이론과 페미니스트 정치학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는 장치로 제안하는 데 그쳤다면, 본 논문에서는 버러드의 개념을 포함한 과학기술학의 세 존재론적 이론을 손에 들고 성형외과 현장연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 하기의 한 유형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문제의식 하에 페미니스트 성형수술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일 것이다. 이어서 과학기술학 분야의 존재론적 전환에 해당하는 개념 및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형수술 실천을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접점에 있는 연구가 갖는 페미니스트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2. 페미니즘과 물질의 새로운 관계 맺기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생물과 무생물적 존재, 즉 자연, 사물, 몸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인간적 존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이분법적 범주 자체에 도전한다(Hird, 2009; Hird and Roberts, 2011).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선 물질을 페미니즘의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여오자는 것은, 여성, 권력, 섹슈얼리티,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학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물질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분석의 대상으로 들여오자는 것이다(Hird and Roberts, 2011).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하며 더 긴 해명이 필요하다. 언뜻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지난 페미니즘이 쌓아온 성과와 그 안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몸과 물질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다(Ahmed, 2008). 그러나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기존 페미니즘이 물질을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맑시스트 페미니즘의 경우 남녀 간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젠더 문제의 물질적 토대로 보았고 페미니즘 연구는 그 어떤 연구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권력의 형성 및 작동에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페미니스트 몸 연구에서도 물질로서의 몸은 이미지로서의 몸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Coleman, 2014). 수잔 보르도(Susan Bordo), 사라 프랭클린(Sarah Franklin),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엘리자베스 그로츠(Elizabeth Grosz) 등을 비롯하여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몸의 물질성을 논한 바 있다(Ahmed, 2008; Coleman, 2014). 따라서 문제는 지금까지의 페미니즘이 몸의 물질성을 분석해 왔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 왔는가에 있다. 그 방식이란 자연 대 문화의 이분법적 범주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몸

과 물질, 자연 등을 언어와 담론, 문화 등의 효과로서 혹은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출발점이다(Barad, 2007; Davis, 2009). 이렇게 본다면, 신유물론 페미니즘이란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쌓아온 온 몸을 가진 여성,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성과 및 이론적 성취 등과의 단절이기보다는 회절(diffraction)로 보아야 할 것이다(Coleman, 2014; Barad, 2007).

이렇게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자연 대 문화라는 이분법을 넘어 페미니즘이 물질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며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비판을 넘어 페미니즘이 과학기술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해 왔다(Davis, 2009). 그 중에서도 마이라 허드(Myra Hird)는 지금까지 페미니즘이 과학에 접근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신유물론 페미니즘을 페미니즘 연구사 안에 위치시킨다(Hird, 2009). 첫째는 과학의 합리성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잘 알려진 이블린 팩스 켈러(Evelyn Fox Keller)나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 등의 페미니스트 과학인식론이 이런 방식으로 과학에 접근한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페미니즘이 과학으로부터 개념을 빌려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물리학에서 빌려온 회절(diffraction)의 개념으로 그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설명한 바 있다(Haraway, 1997). 셋째, 허드가 제안하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페미니즘과 과학의 다양한 관계 맺기(engagement)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관계 맺기란, 페미니즘과 과학이 대화와 협업을 통해서 서로의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함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윌슨(Elizabeth Wilson)은 페미니즘이 진화론이나 신경과학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

것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Wilson, 2008). 즉 페미니즘이 특히 생물학과 직접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물질로서의 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주장이다. 이것은 솔라미즈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과 같은 70년대의 급진적 페미니스트나 오를랑(Orlan)과 같은 페미니스트 예술가가 보여준 친과학기술주의 혹은 과학기술의 페미니스트 도구화와는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이다.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의 관계 맺기는 “기력을 다한 비평”⁵⁾이 후의 과학기술학이 보여준 존재론적 전환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매건 와린(Megan Warin)의 여성과 비만에 대한 연구(2015)의 예를 통해서 신유물론 페미니즘이 과학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자. 비만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는 앞서 언급된 첫 번째 유형인 ‘비평’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몸에 대해서 과학으로 정당화되는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몸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요지의 연구가 비만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식의 접근은 페미니즘으로 하여금 과학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즉 비만을 설명하기 보다는 비만을 설명하는 과학 및 과학자의 시도를 해체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비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과 같이 거대한 구조적 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그

5) 브루노 라투르는 “비평은 왜 그 기력을 다했는가?(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물(matters of fact)에서 우려물(matters of concern)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Latour, 2004).

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페미니즘의 설명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Warin, 2015). 이러한 비판 담론에 따르면, 살을 빼려는 여성은 구조적 힘에 순종적인 주체가 되고 뚱뚱한 채로 사는 것만이 주류 비만 담론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페미니스트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살찐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선택에서 몸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와린의 비만 연구는 과학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오래된 비만 과학을 비판하는 대신 최신 비만 과학연구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읽어낸다. 이것은 살을 빼는 것이 주류 비만 담론에 순응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며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치적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과학 연구가 오히려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⁶⁾ 이렇게 신유물론 페미니즘이 물질과 함께 작동하는 방식은 주로 과학과의 대화와 협업을 포함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서이다.

6) 론다 슈빙저(Londa Scheibinger)가 이끄는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 프로젝트는 와린의 연구와 반대 방향에서 과학연구와 사회과학(페미니즘)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젠더혁신은 성/젠더 분석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다(Schiebinger, 2008).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젠더혁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후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계획이다.

3. 페미니즘 연구 안, 여성의 몸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을 분석하는 페미니즘 연구 속에서 몸과 물질은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가? 성형수술 연구의 사례는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이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 잘 보여준다.⁷¹ 지금까지 나온 성형수술에 대한 페미니스트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분석에서 성형수술은 거시적이고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식민화하는 기술로 비판되었다.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성형수술을 가부장적 시선과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규정하였고 이 때 여성의 몸은 백인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소비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Morgan, 1991; Frost, 2005; Covino, 2001; Blum, 2005). 두 번째 유형의 분석에서 성형수술은 첫 번째 유형의 분석에서 여성 주체가 수동적인 피해자나 희생양으로만 그려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표적으로 케씨 데이비스(Kathy Davis)와 같은 연구자는 성형수술 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녀들이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는 필요에 의해서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주체임을 보여준 바 있다(Davis, 1995;

⁷¹ 성형수술 연구가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에 대한 모든 페미니즘 연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로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기술, 이를 테면 재생산 기술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 캐리스 탐슨(Charis Thompson)이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페미니즘 영역에서 재생산 기술의 연구사는 1984년에서 1991년까지 제 1기, 그리고 이후 2000년 초까지 제 2기로 나뉜다(Thompson, 2005). 제 1기의 페미니스트들이 재생산 기술을 거시적이고 구조주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와 비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제 2기는 기술적 실행과 젠더 수행성의 일상성(mundanity)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주목하며 재생산기술을 “재생산을 육화하는 새로운 방식”(Thompson, 2005: 70)으로 접근한다.

1997). 물론 이 경우에도 몸의 물질성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세 번째로,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 성형수술 연구의 경우 앞선 두 유형의 분석이 구조 대 행위성 혹은 여성억압 대 여성해방 등의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비판하며 여성의 주체성과 성형수술의 의미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itts-Taylor, 2007). 구성주의적 맥락에서 가부장제와 인종주의는 더 이상 성형수술의 보편적인 설명항이 될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비서구 사회의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이유를 서구 백인의 몸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나 이데올로기 탓으로 단순화할 수 없으며 근대화, 소비자본주의, 지구화 및 민족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아졌다(Edmonds, 2010; 2013; Holliday and Elfving-Hwang, 2012; Brownell, 2005; Leem, 2016).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형수술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몸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몸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성형수술이라는 이질적이고 물질적인 기술적 실천 속에서 몸이 어떻게 실행(enact)되는지와 같이 몸의 존재론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성형수술의 실행이 상담과 수술, 수술 후 회복 등 여러 과정의 절차들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 환자 혹은 잠재적인 환자로서의 여성이 성형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동기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성형수술 연구에서 초점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주체의 정체성과 행위성이지 여성의 몸이나 여성의 몸이 개입되는 기술적 실천은 아니다. 수술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경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질로서의 몸, 성형수술이 개입하는 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성형수술이라는 기술적 절차를 어떻게 경험하고 수술의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세 가지 유형 중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 분석이든 성형수술은 일단 선택하기만 하면 여성에게 새로운 몸과 정체성을 선사하는 기술로 전제된다. 이 때 여성의 몸이 갖는 물질성은 분석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페미니즘이 성형수술과 몸에 대해서 의학에 경합하는 지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때때로 물질로서의 몸이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몸의 고통 및 위험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여성의 신체적 고통 및 위험은 과소재현되거나 과대재현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술의 개입에 따른 몸의 고통 및 위험은 임신중지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담론 속에서는 과소재현되는 반면, 성형수술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담론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대재현된다(Holliday & Taylor, 2006). 물질로서의 몸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페미니즘 정치에서 선택적으로만 등장하고 여성이라는 주체 뒤에 가려져 정교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 생물학적인 몸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와 의사에게로 떠넘겨지고 페미니스트는 사회문화적으로 재현되는 몸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게 된다. 오를랑의 성형수술 퍼포먼스처럼 성형수술은 개별 여성들이 저항이라는 명백한 의도나 정치적인 의식(consciousness)을 가지고 선택할 때에만 페미니즘의 일부가 되고 그러한 의도나 의식 없이 행해지는 성형수술과 주체의 의도나 의식에 무관하게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몸은 페미니스트 이론이나 분석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몸과 함께 작동하는

(working with the body)”(Warin, 2015; Holliday & Taylor, 2006:189) 페미니즘이자 과학기술학으로서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 존재론적 과학기술학 안, 몸 그 자체

페미니즘이 여성의 몸에 개입하는 과학기술적 실천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몸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개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특정한 감각으로 경험하고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Davis, 2007). 따라서 여성의 몸을 둘러싼 과학기술적 실천을 분석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원리 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실천 속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감각과 경험, 그리고 사건들이 분석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재현(예를 들어, 여성의 자기서사 대 의학적 지식)이 갖는 다양성과 경합 이전에 여성의 몸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것을 잘 기술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성형수술 연구에서 비가시화되어 온 물질로서의 몸과 과정으로서의 성형수술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학의 개념적 도구를 빌리고자 한다. 이질적이고 물질적인 실천으로서의 과학기술을 보고 기술하는 일은 과학기술학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 중 하나이다. 특히 과학기술학에서 존재론적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변화들, 이를테면 재현의 다중성에서 존재의 다

중성으로, ‘다를 수도 있음(It could be otherwise)’에서 ‘실제로 다름(It actually is otherwise)’으로, 그리고 논쟁적인 과학기술에서 당연시되는 존재에 대한 연구로의 전환 속에서 몸 그 자체를 잘 기술할 수 있는 장치들이 고안되어 왔다(Woolgar & Lezaun, 2015). 특히 이 절에서는 성형수술과 같은 과학기술의 실천 속에서 실행되는 몸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다음의 세 개념은 각각 정신과 몸, 행위성과 대상화,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등과 같은 이분법적 범주화에 도전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준다.

첫 번째 개념은 몸의 다중성(multiplicity)이다. 안느마리 몰(Annemarie Mol)은 동맥경화증 민족지 연구에서 정신과 몸의 이분법을 넘는 다중적인 몸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Mol, 2002). 몰의 연구는 동맥경화증이라는 질병에 대한 여러 전문가 지식 사이의 경합 혹은 의학 지식 대 환자 경험의 대립을 다루고 있지 않다. 대신 이 연구가 민족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동맥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실험실, 진료실, 의대 강의실 등에서 다르게 실행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이 질병은 양식이나 서류, 이미지, 증례 보고, 의사-환자 대화 등을 통하여 중첩되고 상호연결된 실천들 속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몸의 다중성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저혈당 환자의 몸은 대사하는 몸(metabolic body), 관찰하는 몸(observing body), 그리고 대응하는 몸(counteracting body) 등 최소한 세 가지의 몸으로 실행된다. 예를 들어, 혈당이 떨어지는 증상을 느끼는 몸이 대사하는 몸, 측정 기구를 통해서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몸이 관찰하는 몸, 그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당분을 섭취함으로써 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몸이 대응하

는 몸에 해당한다(Mol & Law, 2004). 이러한 다중적 몸 개념은 정신과 몸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체와 타자, 문화와 자연, 사회와 과학 등 거울상처럼 펼쳐지는 이분법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몸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두 번째 개념은 존재론적 안무(ontological choreography)이다. 캐리스 탐슨(Charis Thompson)(2005)의 존재론적 안무 개념은 이질적이고 물질적인 과학기술 실천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다. 탐슨의 연구(1996; 2005)에 따르면, 불임 클리닉의 여성 환자들은 불임 치료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신의 몸에 대한 대상화(objectification) 경험과 기술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이야기한다. 치료 결과 임신에 성공한 환자는 자신의 행위성을 강조한 반면, 임신에 실패한 환자는 자신의 몸이 기술적 개입에 의해서 대상화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존재론적 안무는 여성들의 불임치료기술 실천이 질 안으로 들어오는 탐침, 초음파 이미지, 환자 진료 기록 차트 등과 같은 사물, 난소, 자궁, 난관 등과 같은 자신의 몸의 일부, 그리고 의료진, 배우자, 가족 등과 같은 다른 사람들 등 이렇게 많은 존재들이 개입되는 과정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존재들이 임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치 하나의 안무처럼 조화를 이루고자 함을 의미한다. 존재론적 안무의 개념은 여성 주체의 행위성과 몸의 대상화가 선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련의 실행 속에서 양립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구조와 행위성 사이에서 오랫동안 딜레마를 겪어 온 페미니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Thompson, 2005: 179-204).

세 번째 개념은 내부-작용(intra-action)⁸⁾이다. 캐런 버러드(Karen Barad)에 따르면, 기본적인 존재론적 단위는 인간도, 비인간도, 사이보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 현상이다. 이미 독립된 존재들을 전제하고 있는 상호작용(interaction)과는 달리, 내부-작용은 작용의 주체가 되는 성분들이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이 현상 속의 성분들이 반복적인 내부-작용을 통해서 물(物)(matter)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성은 “내부-작용의 문제이며, 그것은 어떤 존재에게 부여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의 실행(enactment)”(Barad, 2003: 14)이라고 정의된다. 즉, 행위성이란 인간, 비인간, 사이보그와 같은 주체적 존재에게 부여되는 속성이 아니라 내부 행위 안에서 존재이기도 하고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Barad, 2007: 178). 버러드에 따르면,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사이보그와 같이 이전에 행위자로 불렸던 존재들 역시 특정한 성분들의 내부-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물들이다. 물은 행위성을 소유하는 존재로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물질화 혹은 “행위성의 응결”(Barad, 2007: 151)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드러난다. 탐슨의 존재론적 안무에서 여성 환자의 행위성을 선형적으로 규정하지 않기에 몸의 대상화와 여성 주체의 행위성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듯이, 버러드의 내부-작용은 미리 규정된 주체나 행위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행위성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물의 다중적 몸 개념도 역시 주체와 대비되는 단일하

8) 본 연구자의 2011년 논문과 조주현의 논문(2016)에서 intra-action은 “내부적-상호작용”으로 번역되었으나 상호작용(interaction)과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내부-작용”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9) matter는 material이나 thing과 구분하기 위해 물질이나 사물대신 “물(物)”로 번역한다.

고 고정된 몸을 전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다중적 몸의 실행의 효과로서 몸이 사후적으로 드러남을 말해준다.

5. 성형미인의 존재론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의 성형외과 현장연구에 기반한 성형수술 연구¹⁰⁾를 사례로 들어 과학기술학의 존재론적 개념이 어떻게 여성들의 성형수술 실천과 몸의 변화를 기술할 수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우선 의료 현장에서 성형수술 실천은 환자와 의사를 비롯해서 상담실장과 간호사 등 다양한 인간과 함께 상담실, 수술실, 거울,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 수술대, 수술에 필요한 물품과 도구들, 진통제, 마취제, 수술 후 주의사항 지침 등을 포함한 비인간적 존재가 개입하는 안무로 기술될 수 있다. 이 존재론적 안무는 가시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다중적 몸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의료 행위로 드러나지만,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환자 자신의 다중적 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작용에 의존하게 된다. 아래의 내용에서 보겠지만 성형수술은 여성에게 예전에 없던 새로운 몸(아름다운 외모)과 새로운 정체성(아름다운 여성)

10) 본 절의 사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5개월에 걸쳐 수행한 본 연구자의 성형외과 현장연구에 근거한다. 현장연구는 성형외과 참여관찰과 환자 10인에 대한 면대면 심층인터뷰, 그리고 연구자의 수술경험을 토대한 한 자기민족지적 연구를 포함한다. 현지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총 3명의 성형외과 전문의를 둔 성형외과 의원이었고 참여관찰 및 기록, 그리고 자료 수집은 모두 현지인의 사전 혹은 사후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다.

을 부여하는 기술이 아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접근, 즉 페미니즘과 성형수술의 새로운 관계 맺기는 여성이 성형수술을 소비함으로써 예쁜 얼굴을 갖게 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성형수술을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몸과 함께 작동하는”(Holiday & Taylor, 2006: 189) 기술적 실천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성형수술은 크게 수술 전 상담, 수술, 수술 후 회복이라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그리고 여성의 몸은 각각의 과정에서 다른 존재로 실행된다. 우선 성형수술 전 의사와의 상담 과정은 환자의 관찰하는 몸이 의사와 협상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환자의 몸이 사진이라는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이다.¹¹⁾ 상담실에는 사진을 찍는 데에 필요한 흰색 스크린, 조명 장비, 디지털 카메라와 삼각대 등이 구비되어 있다. 환자는 데스크 위 대형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상담 중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면과 측면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의사가 이전에 수술했던 환자들의 시술 전후 사진 및 국내외 남녀 유명인 사진을 보게 된다. 상담 내내 의사와 환자가 집중하는 것은 환자의 몸이 아니라 의사의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화면이다. 수술 전 의사-환자 상담은 환자의 몸을 평면적인 이미지로 환원하여 ‘알 수 있는’ 혹은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삼차원의 복잡한 몸이 알 수 있고 관찰 가능한 이차원 이미지로 실행된다는 것은 성형수술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좋은 수술결과를 내기 위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행위이다.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라는 새로운 이미지 기술의 도입은 환자의 몸이라는 삼차원의 다중적 존재를 바로 눈앞에서 사진이라는 이차원적이고 시각적인 대상으로 바꾸어냄으로 의

11) 이 과정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본 연구자의 논문(임소연, 2011a)을 참조하라.

사-환자 협상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상담 중에 동원되는 국내외 연예인들의 사진은 관찰의 규범화하기 위해 필요한 도식적 공간으로 활용된다(Lynch, 1985). 이 과정에서 작은 턱은 “여성스러운 얼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남녀 공히 “호감을 주는 부드러운 인상”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성형외과의 상담실에서 환자의 몸을 시각화하는 기술적 실천은 앤 발사모(Anne Balsamo)가 주장한 것처럼 “실제 수술 결과, 가능한 수술 결과, 예상되는 수술 결과 간의 차이를 구분하는 [환자의] 능력을 약화”(Balsamo, 1996: 78) 시킴으로써가 아니라 환자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로 수술실에서는 상담실에서와는 전혀 다른 몸이 등장한다. 생리적인 대사 작용을 하고 일정한 해부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몸이다. 앞서 상담실에 등장한 관찰하는 몸과 이 차원의 관찰 대상인 몸은 여기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개 수면 마취나 전신마취 중에 이루어지는 수술의 특성 상 사회적인 주체로서의 환자가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나 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행위성을 정의한다면 수술실의 여성 환자가 행위성을 가질 확률은 매우 낮다.¹²⁾ 기존 성형수술 연구에서 수술 장면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이유일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성형수술 실천의 물질성은 보통 “크고 작은 칼과 바늘”이나 “살갓을 자르고 꿰매는 장면” 등으로 묘사된다.¹³⁾ 수술실에서 환자는 수동적인 몸으로 전락하여

12) 국소 마취나 마취 없는 가벼운 시술의 경우 환자는 시술 중에도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표현하는 등 가시적인 행위성을 갖는다.

13) 인용된 표현들은 한국 성형의료산업을 분석한 임인숙의 논문(임인숙, 2002: 201)에서 발췌되었다.

얼굴과 피부가 “칼과 바늘”에 의해서 잘리고 꺾매지며, 그 “칼과 바늘”을 쥐고 있는 의사는 유일한 행위자이자 위험과 고통의 가해자가 된다. 다른 수술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 행위성이 중요한 의제인 페미니즘 연구에서 성형수술은 이렇게 환자를 비인간화하고 대상화하는 행위이자 의사가 권력 및 행위성을 독점하는 행위로 기술되어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성형수술이란 환자의 무력한 몸과 강력한 의사, 그리고 그런 의사의 손에 들린 도구인 ‘칼과 바늘’만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수술실이 주는 가장 압도적인 시각적 특성은 살과 뼈가 잘려 나가는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광경이 아니라, 수술실을 가득 채운 크고 작은 사물들의 존재이다. 이 사물들은 석션(suction) 기기처럼 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가 큰 기계부터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원통형 혹은 사각형 모양의 스테인리스 용기, 그리고 수술포 위에 깔린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수술 도구까지 그 크기와 모양, 위치, 종류 등이 각양각색이다.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물들을 일상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다루는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물과 노동의 존재는 수술 중 의사의 몸과 환자의 몸을 매개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사이의 행위성의 위계를 완화한다. 하나의 수술은 마치 하나의 안무처럼 반복과 훈련, 교육 등을 통해 미리 짜인 각본과 임기응변적 조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 과정은 강력한 수술 주체인 의사와 수동적인 수술 대상인 환자 사이의 1:1 대결이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과 간호사, 마취 담당의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까지 포함하는 이질적인 존재들의 군무와도 같다(Hirschauer, 1991). 수술실의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사물과 노동의 실행이 갖는

행위성은 그것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가시화된다. 언론 보도에 종종 등장하는 주사액 변질로 인한 감염 사고가 대표적이다¹⁴⁾.

마지막으로 수술이 끝나면 환자는 자신의 몸을 돌보고 몸의 변화에 대응하며 노동하는 몸으로 실행된다. 물론 관찰하는 몸, 관찰 대상인 몸, 대사하는 몸 등 역시 실행되며 돌보는 몸은 이렇게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몸에 대응하고 조율하는 노동을 수행한다. 성형외과에서는 퇴원하는 환자에게 수술의 종류에 따라 미리 작성된 “수술 후 주의사항”을 종이에 출력해 준다. 예를 들어, 절개식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얼음찜질을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하고 “수술 후 5일간은 베개 2~3개를 베고” 누워야 하며 “눈 화장은 실밥 제거 다음 날부터 약간씩 시작”할 수 있고 “세수는...문지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한마디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특정 기간 동안 회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리고 실밥을 뽑거나 붕대를 푸는 등 수술 후 남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모두 기록한 것이다. 수술 후 환자는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이 주의사항에 의거하여 처방약, 찜질도구, 베개, 화장품, 아스피린, 술, 담배 등을 이용하며 다중적인 몸 사이에서 미인이라는 새로운 일관성을 얻고자 애쓴다(Mol & Law, 2004). 성형미인 되기가 다중적 몸의 내부-작용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

성형수술로 얼굴이 예뻐지면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믿음은 몸과 마음의 허구적 이분법 혹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이분법에

14) 예를 들어, MBC TV의 『PD 수첩』(2009년 9월 29일 방영)은 부산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 부작용으로 2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밝혀졌고 그 원인으로 비위생적인 수술실과 주사액 변질 등이 의심되었다.

근거한다. 몸은 어떠한 상황, 사건, 맥락에 놓이는가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는 다중적인 존재이기에 미인의 몸은 하나가 아니다. 물론 몸이 다수가 아니라 다중적이라는 것은 실행되는 몸들이 모두 존재론적으로 분리 가능한 개별의 존재들이 아님을 뜻한다. 턱의 찌릿찌릿한 감각, 손으로 만져지는 두툼한 붓기, 거울 속의 부은 얼굴, 그럴 듯해 보이는 사진 속 왼쪽 얼굴, 웃을 때 비대칭인 양쪽 입꼬리. 찜질팩을 들고 있는 손, 우울하게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는 나, 수술 후 처음 만나는 지인이 보는 내 얼굴, 편안해 보이는 옆얼굴 라인 등 이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아닌 몸은 없지만 모두 다른 상황과 사건, 맥락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혹은 지속되는 다른 몸들이다. 성형미인 되기는 몸과 마음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다중적 몸의 내부-작용이다. 수술 후 과정에서 몸의 다중성은 특히 수술 후 사진 속 몸에 대한 평가와 실제 몸에 대한 평가가 다를 때 가시화된다. 사진 속의 몸은 예쁘는데 실제 몸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를 들을 때 환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수술 후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을 때 사진 속의 몸이 예뻐졌다는 말을 들으면 맘이 놓이기도 한다. 수술 전 상담실에서 환자의 실제 몸보다 사진 속의 몸의 외모가 더 부정적인 평가를 쉽게 듣는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사진 속 몸은 실제 몸보다 알기 쉽고 관찰하기 쉽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성형미인이라는 물을 다중적인 몸의 내부-작용의 효과로 본다면 성형미인 되기가 감응적인(affective) 과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성형수술로 미인이 된다는 것은 성형수술을 선택하면 자동

15) 신유물론적 연구에서 생성(becoming)과 감응(affect), 그리고 관계 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연구 대상이다(Fox & Alldred, 2016).

으로 얻어지는 결과도 아니고 훌륭한 실력을 가진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의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 및 소속 집단뿐만 아니라 장소나 환경, 진통제나 항생제, 찜질도구, 카메라, 인터넷 등과 같이 사물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모든 존재들은 환자나 의사의 의지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형미인의 존재론을 쓴다는 것은 이질적인 존재들의 기록이자 불안의 기록이다.¹⁶⁾

6. "몸과 함께" 연구하기

본 논문은 주체 대 대상 그리고 행위성 대 구조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을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남성적인 과학기술 대 여성들의 경험이라는 대립 구도 대신 몸이라는 존재와 그것의 실행에 집중함으로써 제 3의 방식으로 여성의 성형수술의 실천을 묘사했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성형미인의 존재론에 따르면, 성형미인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존재론적 안무와 다중적 몸 간의 내부-작용을 통해서 성형미인이 되어 간다. 이렇게 의학 지식의 권위에 기대거나 환자의 자기서사에 의존하는 방

16) 본 연구자는 '불안의 기록'을 "아름다움의 불안한 생산: 다루기 힘든 몸, 수술 불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살핌(The anxious production of beauty: Unruly bodies, surgical anxiety, and invisible care)"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미 출판한 바 있다(Lcem, 2016).

식을 거치지 않고 여성의 성형수술 경험을 기술함으로써 공식적인 의학 지식에서 삭제되거나 특정한 질문에 의해서 맥락화되는 환자 인터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성형수술 과정의 이질성(heterogeneity), 성형수술 결과의 불확정성(indeterminacy), 그리고 (여성) 환자의 행위성과 몸의 대상화 사이의 양립가능성, 다중적이고 트릭스터(trickster)(Haraway, 1991)¹⁷⁾같은 몸 등을 보여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성형미인의 존재론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자 혹은 기술 소비자로서의 여성 주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과학기술 실천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여성의 몸과 과학기술 실천의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얽히면서 실행되는 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존재론적 과학기술학의 접점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는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는가? 여성이 아니라 몸에 주목하여 과학기술 실천 과정을 기술하는 것을 과연 페미니즘 연구로 부를 수 있는가? 만약 페미니즘 연구를 여성이나 젠더라는 기존 인간중심적 사회(학)적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정의한다면 본 논문의 ‘성형미인의 존재론’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 비평의 목표[를] 문화의 힘과 복잡성, 그 체계적 성격, 그리고 상호 연결된 그물망 같은 문화의 작용을 일깨우고 이해시키고 더 잘 의식하게 하는 것”(보르도, 2003: 47)이라고 규정하는 한, ‘한

17) 사기꾼이나 협잡꾼이라는 트릭스터의 사전적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트릭스터는 우리가 온전히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해러웨이는 세상(자연)의 행위성을 트릭스터 혹은 코요테(coyote)로 상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트릭스터는 미국의 남서부에 살던 원주민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화적인 존재로, “우리가 속임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지배를 포기하고 신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Haraway, 1991: 199)해야 하는 대상이다.

국의 성형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성형미인의 존재론'은 페미니즘 연구로 불릴 수 없다.¹⁸⁾ 그러나 여성(대문자 여성)이 특정 과학기술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어야만 페미니즘 연구인 것은 아니다(Singleton, 1996). 페미니즘 연구가 과학 기술과 관련된 협상 및 결정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판단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정치적 임무가 있다면(Whelan, 2001), 불확정성, 이질성, 다중성, 다루기 힘들(unruliness) 등으로 가득한 성형수술의 세계를 보여주는 '성형미인의 존재론'은 성형 문화 비평만큼이나 여성들에게 자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폭로나 비판이 아닌 성형수술 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앞서 허드가 제안한 페미니즘과 과학의 협업적인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성형수술 및 여성과 관련된 의학지식이나 의료 기술의 개선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예시한 '몸과 함께' 하는 성형수술 연구는 환자가 남성이어도 똑같이 적용가능하다. 이것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식의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가 가진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연구의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몸과 함께' 하는 연구는 특정 과학기술 실천을 여성의 문제로 고착화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한다. 어떤 대상이 여성의 문제임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연구는 때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보조

18) 이것은 신유물론 페미니즘 연구가 의도적으로 지역적 맥락이나 문화의 영향을 설명하지 않거나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의 물질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르게 설명한다는 뜻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성형미인의 존재론'은 한국의 성형수술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완결된 연구가 아니라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 연구의 접점에서 가능한 연구의 사례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식기술 역시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의료민영화 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문제’로서만 틀 지워지면서 그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논의가 제한되어 왔다(백영경, 2010). 성형수술 역시 여성의 문제로만 다루어지기 보다는 치료에서 향상(enhancement)으로 전환된 의료산업 혹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나 인간향상(human enhancement) 기술 등의 문제와 연결됨으로써 더 진지한 사회적 관심과 더 다양한 학문적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다.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의 대상으로서 여성과 과학기술의 ‘안-사이’에 존재하는 몸은 하나가 아니다. 여성과 과학기술의 ‘안-사이’에는 여성의 몸이자 과학기술에 의해서 대상화되는 몸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도구, 기계, 지식, 이미지 등 수많은 존재들이 실재한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로서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몸과 함께’ 연구하기는 몸이 몸과 정신의 이분법에서 해방되어 다중적으로 존재함을 연구하는 것이고, 과학기술 실천이 행위자와 대상의 이분법에서 해방되어 과학기술과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연결되고 얽혀있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며, 어떤 존재가 행위자인가 아닌가의 이분법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존재를 생성하는 행위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물(物)의 해방은 본질적으로 페미니스트 프로젝트”(Dolphijn & der Tuin, 2012: 93, Coleman, Page, & Palmer, 2019에서 재인용)라고 말한 바 있다. 해방된 몸과 함께 하는 연구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페미니스트 프로젝트이다.

참고문헌

- 김환석 (2016),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을 위하여」, 『경제와 사회』, 제 112호, 208-231쪽.
- 백영경 (2010), 「보조생식기술의 민주적 정치와 ‘겸허의 기술’: 시민참여 논의의 확대를 위하여」, 『경제와 사회』, 제 85호, 40-66쪽.
- 수전 보르도, 박오복 번역 (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페미니즘, 서구문화, 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Bordo, S. (1993).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임소연 (2011a), 「성형외과의 몸-이미지와 시각화 기술: 과학적 대상 만들기, 과학적 분과 만들기」, 『과학기술학연구』, 제 11호 1권, 89-121쪽.
- _____ (2011b), 「여성의 기술과학 실행에 대한 기술-과학적 방식의 생각하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적 관점에서」, 『과학기술학연구』, 제 11호 2권, 97-119쪽.
- 임인숙 (2002),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형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6권 제 3호, 183-204쪽.
- 조주현 (2016),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버러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제 25호, 65-104쪽.
- Ahmed, S. (2008), “Open Forum Imaginary Prohibitions: Some Preliminary Remarks on the Founding Gestures of the New Materialism”,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15, No. 1, pp. 23-39.
- Balsamo, A. (1996),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Blum, V. (2005), "Becoming the Other Woman: The Psychic Drama of Cosmetic Surgery", *Frontiers: A Journal of Women Studies*, Vol. 26, No. 2, pp. 104-131.
- Brownell, S. (2005), China Reconstructs: Cosmetic Surgery and Nationalism in the Reform Era. In Joseph S. A., ed., *Asian Medicine and Globalization*, pp. 132-50.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ampbell, N. D. (2009), "Reconstructing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Views from Feminist Standpoint Theory", *Frontiers: A Journal of Women Studies*, Vol. 30, No. 1, pp. 1-29.
- Coleman, R. (2014), "Inventive Feminist Theory: Representation, Materiality and Intensive Time", *Women: A Cultural Review*, Vol. 25, No. 1, pp. 27-45.
- Coleman, R., Page, T., & Palmer, H. (2019), "Feminist New Materialist Practice: The Mattering of Methods", *MAI: Feminism & Visual Culture*, Vol. 4 May (available from <https://maifeminism.com/feminist-new-materialisms-the-mattering-of-methods-editors-note/>)
- Covino, D. C. (2001), "Outside-In: Body, Mind, and Self in the Advertisement of Aesthetic Surgery",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 35, Vol. 3, pp. 91-102.
- Davis, K. (1995), *Reshaping the Female Body: The Dilemma of Cosmetic Surgery*, New York & London: Routledge.

- _____ . (1997), "My Body is My Art: Cosmetic Surgery as Feminist Utopia?", *The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4, No. 1, pp. 23-37.
- Davis, K. (2007), "Reclaiming women's bodies: Colonialist trope or critical epistemology?", *The Sociological Review*, Vol. 55, No. 1, pp. 50-64.
- Davis, N. (2009), "New Materialism and Feminism's Anti-biologism: A Response to Sara Ahmed",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16, No. 1, pp. 67-80.
- Dolphijn, R. & der Tuin, I. (2012), *New Materialism: Interviews and Cartographies*. Ann Arbor, MI: Open Humanities Press.
- Edmonds, A. (2010), *Pretty Modern: Beauty, Sex, and Plastic Surgery in Brazil*.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 (2013), "The Biological Subject of Aesthetic Medicine", *Feminist Theory*, Vol. 14, No. 1, pp. 65-82.
- Fox, N. J., and Alldred, P. (2016), *Sociology and the New Materialism: Theory, Research, Action*. Los Angeles: Sage.
- Frost, L. (2005), "Theorizing the Young Woman in the Body", *Body & Society*, Vol 11, No. 1, pp. 63-85.
- Haraway, D. (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 _____ (1997), *Modest_Witness @ Second_ Millennium. FemaleMan_ Meets_OncoMouse*,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4), *The Haraway Reader*. New York & London: Routledge.
- Hird, M. J. (2009) "Feminist Engagements with Matter", *Feminist Studies*,

Vol. 35, No. 2, pp. 329-346.

- Hird, M. J. & Roberts, C. (2011) "Feminism Theories the Nonhuman", *Feminist Theory*, Vol. 12, No. 2, pp. 109-117.
- Hirschauer, S. (1991), "The Manufacture of Bodies in Surgery",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21, No. 2, pp. 279-319
- Holliday, R. & Taylor, J. S. (2006), "Aesthetic Surgery as False Beauty", *Feminist Theory*, Vol. 7, No. 2, pp. 179-195.
- Holliday, R. & Elfving-Hwang, J. (2012), "Gender, Globalization, and Aesthetic Surgery in South Korea", *Body and Society*, Vol. 18, No. 2, pp. 58-81.
- Latour, B. (2004), "Why has Critique Run out of Steam? From Matters of Fact to Matters of Concern", *Critical Inquiry*, Vol. 30, No. 2, pp. 225-248.
- Leem, S. Y. (2016), "The Anxious Production of Beauty: Unruly Bodies, Surgical Anxiety, and Invisible Car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46, No. 1, pp. 34-55.
- Lykke, N. (2010), "The Timeliness of Post-constructivism", *Nordic Journal of Feminist and Gender Research*, Vol. 18, pp. 131-136.
- Lynch, M. (1985), "Discipline and the Material Form of Images: An Analysis of Scientific Visibility",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5, No. 1, pp. 37-66.
- MBC TV (2009. 9. 29), 「죽음을 부른 성형수술」, PD 수첩.
- Morgan, K. P. (1991), "Women and the Knife: Cosmetic Surgery and the Colonialization of Women's Bodies", *Hypatia*, Vol. 6, No. 3, pp. 25-53.
- Mol, A. & Law, J. (2004), "Embodied Action, Enacted Bodies: The Example

of Hypoglycemia”, *Body & Society*, Vol. 10, No. 2-3, pp. 43-62.

- Mol, A. (2002), *The Body Multiple: Ontology in Medical Practic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Pitts-Taylor, V. (2007), *Surgery Junkies: Wellness and Pathology in Cosmetic Cultur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Puig de la Bellacasa, M. (2009), “Touching Technologies, Touching Visions. The Reclaiming of Sensorial Experience and the Politics of Speculative Thinking”, *Subjectivity*, Vol. 28, pp. 297-315.
- _____ . (2011), “Matters of Care in Technoscience: Assembling Neglected Things”,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41, No. 1, pp. 85-106.
- Schiebinger, L. L. ed., (2008). *Gendered Innov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ingleton, V. (1996), "Feminism,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Postmodernism: Politics, Theory and M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26, No. 2, pp. 445-468.
- Thompson, C. (1996), "Ontological Choreography: Agency through Objectification in Infertility Clinics",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26, No. 3, pp. 575-610.
- _____ (2005), *Making Parents: The Ontological Choreography of Reproductive Technologies*, Cambridge and London: The MIT Press.
- Warin, M. (2015), “Material Feminism, Obesity Science and the Limits of Discursive Critique”, *Body and Society*, Vol. 21, No. 4, pp. 48-76.

- Whelan, E. (2001), "Politics by Other Means: Feminism and Mainstream Science Studie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26, No. 4, pp. 535-558.
- Wilson, E. (2008), "Organic Empathy: Feminism, Psychopharmaceuticals, and the Embodiment of Depression," In Alaimo, S. and Hekman, S., eds, *Material Feminisms*, Bloomington, pp. 373-399,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Woolgar, S., & Lezaun, J. (2015), "Missing the (Question) Mark? What is a Turn to Ont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45, No. 3, pp. 462-467.

논문 투고일	2019년 09월 27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1월 09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9년 11월 09일

Doing Science, Technology, and Women Studies : “With the Body” in-between New Material Feminism and STS

So Yeon Leem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material has mattered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West and feminism is no exception. It is a notable change that feminist analyses, which had previously shown critiques against science and technology, attempted to build new engagements with matter. 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has also accumulated scholarships and developed conceptual tools on the thing or the existence itself through “the ontological turn.”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not to introduce new materialism or new material feminism in full, but to reveal the possibility and potential of doing science, technology and women studies by selectively relying on the achievement of new materialism feminism. This article shows a way to study women's pract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analyzing the case of plastic surgery practices through the ontological concepts of STS, particularly those of Annemarie Mol, Karen Barad, and Charis Thompson, and proposes a new engagement among new materialism, feminism, and STS.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fter briefly discussing main issues in new material feminism, I will show the limitations of previous feminist studies of plastic surgery under the light of new material feminism. The rest of the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ual tools of ontological STS, describes plastic surgery practices with those tools, and finally provides their feminist implications.

Key terms | Matter, Ontology, New Materialism, Feminist STS, the Body Multiple, Intra-action, Ontological Choreography, Science, Technology, and Women.